문병민

누구나 생활 속 크고 작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용자의 고민을 접근성이 좋은 앱과 웹을 이용해 쉽고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해줍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생활하며 겪을 경험의 과정을 쉽게 간소화하는 방법과 그 방법에 어울리는 UI는 무엇일지 연구합니다. 사용자의 복잡한 고민을 쉽고 단순하게 풀어주는 UX 디자이너가 목표입니다.

Moon Byungmin  
Everyone has big and small worries in their lives. UX solves such users' worries in an easy and simple way using accessible apps and the web. To this end, I study how to easily simplify the process of experiences that users will experience in their lives and what UI will be appropriate for that method. I wish to be a UX designer who solves users' complex problems easily and simply.

[moon\_bbb@naver.com](mailto:moon_bbb@naver.com)